

## 한중 여성 장애인 창작 소설에 나타난 자의식 발현

### 양상 비교 연구\*

—안혜성 『불꽃춤』과 장하이다 『휠체어의 꿈』을

중심으로—

차희정\*\*

#### 요약

이 글은 한국과 중국 여성 장애인의 자서전적 소설 『불꽃춤』과 『휠체어의 꿈』에 나타난 자의식 발현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즉, '장애를 가진 여성' 창작자의 자의식이 어떻게 구성, 발현되며 무엇을 어떻게 드러내고자 한 것인지를 탐색한 것이다. 『불꽃춤』의 '민성'은 이상주의자인 아버지가 거제도포로수용소에서 살해되며 겪은 이데올로기 대립과 갈등, 아버지 부재의 상처를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총탄을 맞고 잠적한 사촌 동생 '민진'을 찾음으로써 치유 받는다. 민진의 장애는 권력의 폭압과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로 갱생의 삶을 매개하고 권력이 조장한 분열과 대립에 저항하며 삶의 비정형성의 공간을 구성하였다. 『휠체어의 꿈』의 '방단'은 일관되게 자신의 장애를 극복의 '과제'로 삼고 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기대는 문화대혁명을 겪으며 더욱 구체화되고 적극적으로 구성되는 양상이다. 두 소설의 주인공을 통해서 드러나는 창작자의 자의식은 장애를 매개로 긍정적 미래를 기대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으나 권력 이데올로기와의 조응은 저항(『불꽃춤』)과 순응(『휠체어의 꿈』)의 방식으로 다르게 표출되었다.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042803)

\*\* 명지전문대학 초빙교수

주제어: 자서전적 소설, 장애, 장애인, 여성, 자의식

## 목차

1. 머리말
2. 갈등 봉합과 존재론적 생명 인식: 『불꽃춤』
3. '과제' 극복과 헌신의 사명 실천: 『휠체어의 꿈』
4. 삶의 비정형성을 획득하고 주체로서 현실과 조응하는 여성, 장애
5. 맺음말

## 1. 머리말

일반적으로 자의식<sup>1)</sup>은 타자성의 개입, 즉 외부의 계기에 의해 촉발된다. 소설의 경우 등장하는 주요 인물의 자의식은 당대 현실이 추동하여 구성되고 갈등을 통해서 표출된다. 그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면 표출된 자의식의 본질과 그 의도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자서전적 소설<sup>2)</sup>은 저자와 서술자, 주인공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 1)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예시하는 시각 모델에 의하면 자기에 대한 의식은 자기를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비로소 촉발된다. (장 폴 사르트르, 손우성 옮김, 『존재와 무Ⅱ』, 삼성출판사, 1976, 111면)
- 2) '자전적 소설'이란 "인술된 내용에서 저자와 주인공이 유사성을 갖는 텍스트는 자전적 소설의 범주에 포함된다. 저자 자신이 주인공과 동일인임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것이 자기의 이야기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독자가 그 이야기 속에서 그것이 저자 자신의 이야기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때문에 작가와 주인공이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허구의 텍스트들"이다. 자전적 소설은 자서전과는 달리 주인공과 저자가 어렴풋이 '닮은 것 같은' 단계에서부터, 그 둘이 '그대로 빼어닮은' 분명한 유사성의 단계에까지 몇 단계를 포함하게 된다. (필립 르죈, 『자서전의 규약』, 윤진 역, 문학과지성사, 1998, 35면)

내용이 저자의 이야기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허구로서의 이야기의 흥미와 함께 긴장을 유지한다. 자서전적 소설은 ‘허구’와 ‘사실’이라는 소설과 자서전의 장르적 특성과 양식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글쓰기를 진행하면서도 저자 자신의 이상,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대상이 된다. 특히 신체 ‘장애’와 ‘여성’이라는 태생적 조건을 가진 절대적 약자로서의 저자의 자의식은 소설의 주제와 함께 장애, 여성에 대한 작가 의식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에 본고는 한국과 중국 여성 장애인의 자서전적 소설을 대상으로 소설에서 드러나는 자의식 발현의 양상을 관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소설의 갈등 상황에서 주인공을 통해 드러나는 저자의 자의식이 어떻게 구성, 발현되고 독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려는 것인지를 탐색하여 장애인 문학<sup>3)</sup>으로서 한중 여성 장애인 소설의 특성을 대략적이거나 구명해보려는 것이다. 본고가 주목하는 ‘안혜성’<sup>4)</sup>과 ‘장하이디(張海迪)’<sup>5)</sup>의 자전적 소설인 『불꽃춤』과 『월채어

3) 지금까지 장애인 문학의 개념적 정의와 범주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장애, 장애인을 주요 제재로 한 문학과 장애인 작가의 창작 문학 등을 아울러 ‘장애인 문학’으로 명명하는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장애인 문학의 개념과 범주 관련해서는 방귀희, 『장애인문학의 특성과 과제』, 『국제한인문학연구』 21호, 국제한인문학회, 2018, 5-40면; 차희정, 『장애인 창작 소설의 주제변모 양상-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25년간의 수상작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62,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405-431면을 참고하라)

4) 안혜성(安惠星/1948.10.26. ~ 2007.8.18.)은 전남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출신으로 고려대 신문방송학과와 서울대 신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왼쪽 다리가 소아마비인 장애인이다. 1970년~1980년까지 영자신문 ‘코리아 헤럴드(The Korea Herald)’에 입사해 편집국 문화부 차장으로 근무했다.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보도로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해직되었으며 1982년~1993년까지 미국문화원 공보과에서 번역자로 근무하였다. 해직 이후 광주항쟁과 해직의 고통을 담은 장편소설 『베로니카의 노래』로 1985년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돼 소설가로 등단하였다. 그밖에도 『불꽃춤』(1987), 『향목』(1990)등 소설과 수필집 『홀로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1991), 『그대 사랑과 꿈을 노래하라』(1997), 『예비된 결혼에 이르는 사랑의 언어』(2000) 등이 있다. 2007년

의 꿈』<sup>6)</sup>은 각각 '5·18광주민중화운동(이하 '광주')'과 '문화대혁명(이하 '문혁')'을 체험한 속에서 형성된 저자의 의식을 내재하고 있다. 자서전적 소설이 저자의 의식을 좇을 수 있는 장르라는 것을 생각하면 '소설의 주제에 담지 된 저자의 목적을 찾고, 그것을 어떻게 부각시키고 있는지 등을 관찰하여 그 의미와 의의까지를 이해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안혜성과 장하이디(張海迪)는 여러 면에서 닮았다. 우선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여 각각 광주와 문혁을 체험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광주와 문혁을 배경으로 장애와 장애인이 주요 제재와 등장인물인 소설을 발표하고 크게 주목받았다.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 속에서 주인공이 권력 이데올로기와 충돌, 조용하는 양상은 한국과 중국의 장애 여성인 저자의 자의식을 비교하여 각각의 변별적 특성을 살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 5) 장하이디(張海迪/1953.09.16.~ ) 중국 산둥성 제남에서 출생했다. 5살에 고열에 시달리다 척추장애를 갖게 되었다. 독학으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한의학과 외국어를 공부하여 농촌에서 만 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하고 글을 썼다. 1983년부터 창작 활동을 시작했으며 1989년 중국 홍보부 "우수 청년 사상 근무자(年中宣部授予"优秀青年思想工作"称号) 상을, 1990년 산둥공청단위원회 "10대 훌륭한 청년"(年山東團省委授予"十大杰出青年"称号), 1992년 『월채어의 꿈』으로 중국 작가 협회 장중 문학상(年中國作協莊重文學獎), 1994년 전국 첫회 문명진보상 장편소설 1등(年全國首屆奮發文明進步獎長篇小說一等獎) 상을 수상하였다. 그 밖에 중국장애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까지 국가 소속 각종 장애인 협회, 단체 등의 장을 맡고 있다. 현재 중국 인민교육출판사 초등학교 국어 4학년 (하) 교과서에 실린 글〈생명 생명〉(人教版小學語文四年級下冊「生命 生命」)에서 장하이디 이야기("인생에서 누구나 어려움 및 좌절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이런 어려움 및 좌절을 이길 수 있는지 중요하다. 만약 극복하면 당신이 바로 영웅이며, 생활의 강자이다."在人生的道路上, 誰都會遇到困難和挫折, 就看你能不能戰勝它, 戰勝了你就是英雄, 就是生活的強者)와 그녀의 어록("백 번 넘어져도 백 한 번 일어나야 한다"即使跌倒一百次, 也要一百零一次站起來。- 張海迪)을 소개하며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 6) 소설은 2011년 영화로도 제작('나의 소녀시대')되었다(2011년 3월 24일 상영)('張海迪真人真事電影《我的少女時代》下旬公映', 『北京晚報』, 2011년 3월 25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본고는 두 소설 속 인물을 통해 드러나는 자의식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것이 부각 되는 방식과 양상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이때 텍스트와 저자의 경험 등을 단순 비교하는 선에서 머무르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작품 분석과 작가 연구의 경계에서 혼란을 자초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저자의 자의식 개입으로 구성된 서사의 경우 과거의 개인적 체험의 생생함을 염두 하는 동시에 개인적 체험의 폐쇄성에 매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인적 체험은 역사 전개의 일반성을 개방적으로 수용한 가운데서 살펴야만 소설 속 저자의 자의식의 의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장애인 문학 연구 성과는 대략 네 갈래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장애인 재활과 문학 교육, 장애인관에 대한 비판적 인식, 장애인 창작 문학 분석 등이다.<sup>7)</sup> 특히 최근 들어 장애인 작가의 등장과 그들의 창작물이 어느 정도 집적되면서 소수자 문학으로서 장애인 문학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한국 문학의 범주에 장애인 문학을 편입시키려는 실천적 의지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중국 장애인 창작 소설에 대한 연구는 문혁기에 장애를 갖게 된 사철생(史鐵生) 작품에 대한 총체적 탐구<sup>8)</sup>가 거의 유일하다. 연구는 종교성과 신화적 차원에서 작가의 삶

7) ①장애인 재활, ②문학 교육, ③ 장애인관에 대한 비판적 인식 등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는 차희정, 『장애인 소설에 나타난 장애 인식의 양상-장애인 창작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62집, 2012, 328-353면을 참고하라. ④장애인 창작 소설 연구와 창작 소설에 대한 평가는 김세령·남세현, 『한국 소설에 재현된 다문화 사회 장애 남성상』,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4 No10,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6, 499-506면; 차희정, 앞의 논문을 참고하라.

8) 백영길, 『史鐵生 小説의 宗教性-理念의 喪失과 生命意識』, 『동아시아역사연구』 제6집, 1996, 117-139면; 이혜임, 『史鐵生 小説論』, 『中國文化研究』 제15집, 중국문화학회, 2009, 305-326면; 金鍾頤, 『역사에 대한 反思에서 종교성으로-史鐵生 '자아찾기'의 정신 역정』, 『中國言語論叢』 vol37, 中國語文研究會, 2008, 257-279면

의 과정에 집중하여 소설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구명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문학의 범주에서 장애인 문학의 특성을 구현하는 연구의 촉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와 필요가 강조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과 중국의 장애인 창작 소설을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장애인 문학과 연구 확장의 시대적 요구와 기대<sup>9)</sup>는 이미 여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증명된 바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한중 장애인 문화예술의 발전과 확장 및 각각의 특성과 의의를 구명하는 연구 진작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이 성취된다면 특정 시대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얻고 역사의 증언자로서 새롭게 등장한 구성원의 언어와 의식을 현현하는 귀중한 자료로서의 의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나아가서는 장애 인식의 문제를 또 다른 관점에서 살피는 기회를 창출하고 한국과 중국의 각각의 역사, 문화적 배경 속에서 공통되거나 변별되는 장애의 의미와 의의를 구명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2. 갈등 봉합과 존재론적 생명 인식: 『불꽃춤』

글쓰기는 사회에 존재하는 담론들을 재현함으로써 또 하나의 새로운 담론을 생산한다. 즉, 사회 현실을 구성하는 담론에 대한 새로운 담론의 출현을 기획, 생산하는 것이다. 『불꽃춤』은 한국전쟁기

9) 지난 해(2017년)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주최한 '2018 평창 패럴림픽 G-100기념 한중일 장애인예술축제'는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동아시아 장애인예술의 독창성을 확인하는 기회(11월 29일~12월 2일까지 서울, 강릉에서 공연이 진행되었고 서울 공연은 KBS '열린음악회'를 통해서 방영되었다.)를 만들었다. 기타 미술, 서예, 무용 등 분야에서도 장애예술인단체 중심으로 한중 문화예술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문학에서는 각각의 개성과 공통점 등을 찾는 기회가 부족했다.

이상주의자로서 인류애의 가치를 주장했던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받아들인 주인공 ‘민성’의 죄의식이 광주를 통해서 치유되는 화해와 생명의 담론을 생산한다. 주목할 점은 저자의 체험이 소설 속 주인공을 통해 재현되면서 공감을 얻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사실과 허구의 측면을 동시에 갖는 자서전적 소설의 특성 때문이다.<sup>10)</sup>

『불꽃춤』의 『작가의 말』 첫 구절은 “슬픈 얘기는 싫었다. 구슬픈 노래도 싫었다”는 다소 선언적 말로 시작한다. 그리고 저자는 곧장 “어린 시절부터 살아있다는 것이 내게 적적함과 슬픔과 아픔으로 다가왔을 적부터” “많이 웃었고 노래를 크게 부르곤 했었다”고 고백한다. 저자의 고백은 소설 전체의 이해를 돕는 안내자 역할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듯하다. 스물여덟 살에 청상이 된 어머니와, 아들을 잃은 할머니의 한숨은 저자의 “육체에 각인된 병증”과 차례로 혼용되면서 그의 삶을 ‘강제’<sup>11)</sup>하고 있다. 저자가 ‘울지 않기로 결심’한 것 또한 여기에서 그 까닭을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저자는 1980년 5월 “이웃의 고통으로 처음 울었다”고 고백하며 그 해 8월에 있었던 강제 해직 조치 등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서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비교적 자세한 배경은 소설의 사실 변형이나 진실의 왜곡 등의 가능성을 통해서 저자의 의도와 목적이 적극적으로 드러날

10) 저자와 화자, 주인공이 동일 인물이 아닌 『불꽃춤』을 자서전적 글쓰기에 포함하는 것은 이들 소설의 저자와 서술자와 주인공들의 동일성을 유추할 수 있는 여러 요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작품 밖의 경험적 주체인 저자와 주인공의 삶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둘째, 자서전적 경험을 삼인칭 서술로 전개할 수밖에 없는 여성 작가의 존재론적 상황을 들 수 있다. “소위 고백의 욕망을 제약 없이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인칭 대신 삼인칭 서술을 택하는 것은 여성 작가가 상황에 대응하는 적절한 서술전략이라 할 수 있다.” 즉 사적인 삶에 관심을 갖는 여성 작가들은 자아의 유동적인 과정을 그리고자 한다(박영혜, 이봉지, 『한국여성소설과 자서전적 글쓰기에 관한 연구』, 『亞細亞女性研究』, 숙명여자대학교아시아여성문제연구소, 2001, 7-28면)

11) 문학에서는 여성의 억압을 묘사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장애 이미지를 들먹이기도 한다(로즈메리 갈런드 톰슨, 『보통이 아닌 몸』, 손홍일 옮김, 그린비, 2015, 39면)

것이란 짐작을 가능케 한다.

주인공 ‘민성’은 익숙한 공간에서도 배회한다. 모교 근처를 구석구석 돌아보지만 어느 한 군데서도 ‘발견’되기 어렵다. 이렇듯 그녀의 현재적 상황이 매우 불안한데는 엄마와의 관계 욕망<sup>12)</sup>이 실패한 것에서 큰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민성은 부모로부터 버려진 자신을 각종 이데올로기의 강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정해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타율적인 상황은 머물러 있는 주체에게 곧 죄의식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니가 그랬제? 느그 아버지가 집에 왔다고 떠들어 댜시롱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니가 꾸며냈제?”…중략… “아녀! 아니란 말여!” 힘껏 고개를 내저을수록 민성은 마음이 썩었다. 다음 순간 민성은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 안에 들려 있던 글짓기 종이를 구겨서 작은 휴지 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중략… “단단히 들어두어. 이것야! 느그 아버지가 빨갱이 간첩으로 넘어와서 느그집에 숨어 있응게 느그 아버지를 당장 내놓으라고 느그 할미와 엄니를 닥달이질쳤단 말이어.”<sup>13)</sup>

인용문은 민성의 글짓기가 문제가 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민성은 글 속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알려주신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부모님과 함께 즐거웠던 하루를 글짓기 했다. 금자 언니는 “니가 거짓말을 했냐”며 다그치고 있지만 민성은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보다 자신의 글짓기가 정말 거짓말이 될 수도 있을 현실에 더 큰

12) 도러시 이너스타인과 수전 그리핀은 모두 몸의 취약함, 특히 충족되지 않은 욕구-유아기 때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에서 오는 취약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욕망이 여성을 대상화하고 분노와 통제의 대상으로 만드는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유지하는 원초적인 동기라고 주장한다.(수전 웬델, 『거부당한 몸: 장애와 질병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 강진영·김은정·황지성 옮김, 그린비, 2016, 308면)

13) 83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특히 아버지가 “빨갱이 간첩”으로 넘어와서 집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현실은 아버지를 도둑 잡는 경찰과 대척되는 지점에 세움으로써 선에 맞서는 악의 존재로 변질시키고 있다. 더불어 아버지 부재의 현실은 가족의 붕괴와 함께 민성의 죄의식을 추동하여 여성성의 포기로까지 이끌면서 그 파장이 강조, 확대되는 양상이다.<sup>14)</sup> ‘현실이란 타자’의 개입으로 인해 의식된 자기의 존재는 타율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때 소설의 주인공들은 한편으로 죄의식에 시달리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죄의식을 방어하기 위해 타자성 자체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민성의 일련의 광주 체험이 그것이다.

기왕에 민성의 상처는 소설의 첫 장면에서부터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육체를 “불모의 대지”에 비유하며 청혼자를 떠나보냈던 기억을 소환하면서도 상처를 드러냈다. 이는 그녀의 몸이 자기결정이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장소이자 지배와 저항이 맞물리는 생생한 장<sup>15)</sup>으로 간주 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여성과 장애인의 몸 모두가 일탈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묘사되고,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공적 생활에의 완전한 참여로부터 배제되며 자연적인 신체적 우월성을 지니는 것으로 가정되는 규범과 대조되어 규정되는<sup>16)</sup> 의식에 저항하는 것이다. 민성의 몸은 일련의 비대칭적

14) 남성중심시대올로기는 여성의 종속적 태도와 남성에 의해 존재하는 여성과 모성으로 대표되는 여성성을 생산하였다(엘리자베트 벅 게른스하임, 이재원 옮김, 『모성의 발명』, 알마, 2014:심영희, 정진성, 윤정로, 『모성의 담론과 현실』, 나남출판, 1999등을 참고하라)

15) 배은경, 『여성의 몸과 정체성』, 『새 여성학 강의』, 한국여성연구소, 동녘, 1999을 김양선, 『소비자본주의 사회와 여성의 몸』, 『새 여성학 강의』, 한국여성연구소, 동녘, 2005, 126면에서 재인용

16) 실제로 때로는 여성을 폄하하기 위하여, 때로는 여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여성성을 담론상 장애와 동일시하는 일은 흔하다(로즈메르 갈란드 톰슨, 앞의 책, 39면)

인 일들이 내포한 타자성과 대면하면서 죄의식이라는 특정한 정념을 형성하고 그 정체를 탐색하는 주체로 성장한 것이다.

죄의식은 내적인 대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내적인 어떤 처벌을 두려워하는 감정<sup>17)</sup>이다.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욕구가 잘 해결되지 않거나 갈등사태가 지속되면 나타나는 정서이다. 장차 일어날 것 같은 위협이나 고통에 대한 막연한 예감이다. 민성은 광주를 계기로 그동안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고립되었던 일련의 상황에 일대 변화를 맞게 된다. 자신의 내면을 마주할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성의 죄의식은 궁극적으로는 자기반성으로 수렴되면서 일종의 윤리적 고민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쉽게 소멸되지 않는 내적 갈등을 야기한다. 아버지의 부재에 이은, 민성의 죄의식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스물여덟 청상의 어머니가 삼촌 친구에게 재가하면서 민성이 스스로의 몸에 명명한 “불모의 대지”라는 소멸된 모성이다.

민성은 광주를 계기로 6.25와 아버지의 행방불명을 상기하면서 외면하거나 억제해왔던 내면의 의식을 정면에서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아픔 속에서 10대를 “살아낸” ‘내 땅’에 대한 애정이다. 광주를 매개로 현재의 자신을 구성한 과거의 경험을 재인식한 민성은 광주에서 죽어간 생명<sup>18)</sup>에 대한 애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첫 번

17) 이창재, 『프로이트와의 대화』, 학지사, 2003, 317면

18) 주지하듯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1979년 10.26사태를 통해 장기간 강압적으로 집권해왔던 박정희 유신정권이 무너지자 민주화의 진전에 기대가 높았던 시민사회가 당시 한국군 보안사령관직에 있으면서 10.26사태의 합동수사본부장관과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고 있던 전두환이 부상하게 되자 민주화의 전망에 대해 크게 우려하게 된 데에 원인이 있다. 광주시민들을 비롯한 전국의 민주세력은 민주화 일정의 구체적 실행과 전두환의 퇴진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 등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두환 일파는 1980년 5월 17일을 기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최규하 과도정부의 신현확 내각에 대해 군대를 동원, 강압 하에서 기존의 서울지역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광주와 광주 시민을 통제하고 시민군을 상대로 발포하면서 많은 사망자를 냈다(광주광역시 5.18

째 광주 방문 도전은 실패했으나 이미 촉발된 존재론적 의식은 언젠가는 내면의 고통과 마주 서게 할 텐데 이는 혈육 ‘민진’의 행방불명으로 인해 빠르고 강력한 힘을 얻는다.

“민진이를 찾아야 해요. 제가 그엘 찾아내고야 말겠어요.” 눈빛이 ‘별빛 맹키로’ 반짝였다는 아버지의 가출이 초래한 비극은 할머니의 사망으로 어머니의 개가로 그리고 13평 연탄 아파트에 갇혀있는 내 현실로 부터의 나의 탈주로 그 비극의 막은 내려져야 했다. …중략… “서둘러야죠. 한시라도 빨리 그엘 찾아야 해요. 그애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진정 웃을 수 없으니까요.”<sup>19)</sup>

민성은 민진을 찾는 과제에 집중한다. 민진의 행방불명이 아버지의 가출로 인해 빚어진 과거의 비극을 상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왕에 광주로 시작된 죄의식과의 대면은 민진 찾기로 절정에 다다르며 상처로부터의 탈주를 기획하기에 이르고 있다. 이는 민성이 스스로를 은폐하며 살았던 일과 화해하는 기회인 동시에 과거와 마주 서려는 노력의 경주이다.

민성은 눈빛이 ‘별빛 맹키로 반짝였던’ 아버지의 가출이 초래한 일련의 일들이 되풀이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이를 적극 저지하려고 한다. 아버지를 닮은 이상을 좇는 순수의 청년- 민진을 빨리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 웃기 위해서”인 것이다. 즉,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가족의 설움을 종결하기 위해서이다. 민성의 여성성을 곧 모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다.<sup>20)</sup> 더불어 민성의 생명 인식

자료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2권), 1997, 19면)

19) 279-280면

20) 소설 주인공 민성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성은 생명의 탄생과 양육에 강제된 이데올로기 억압의 문제의식이 휘발된, 양육 담당자로서의 역할과 의식에 대한 신화적이고 원시적인 모성을 의미한다.

은 주체와 객체의 인식관계로 두 존재자들 간의 ‘존재 관계’인 것을 설명한다. 즉, “하나의 특수한 존재 관계를 다루는 인식론은 존재론에 포함된다”<sup>21)</sup>는 존재에 대한 상호 인정적 인식이야말로 곧 생명 의식인 것이다.

“미워하지 마세요! 죽이지들 마시오잉. 우리의 귀하고 소중한 생명이 총질을 당해서는 안된다고요. 총탄 세례와 몽둥이 찜질을 당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목숨이 아니라 서로 서로 믿지 못하고 참아 주지 못하고 사랑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고약한 가슴자리라고요. 불분명한 내일의 삶 앞에 떨고 있는 지지리도 못한 우리 모두의 불신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 떨고 있는 우리의 겁 많고 좁아터진 그 가슴이라고요.”<sup>22)</sup>

인용문은 민진의 친구 ‘삼열’이 군인들을 향해 총을 쏘지 말라고 절규하는 장면이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삼열은 민성에게 “그때그때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특별한 인상을 남겼던 인물이다. 이름이 존재를 증명 할 수 없음을 일찍부터 깨달았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삼열은 총에 맞은 어린아이를 업고 광장 한 복판으로 뛰어들며 총을 쏘지 말라고 외쳤고, 죽은 여자 아이의 리본을 흔들면서 계엄군과 시민군이 대치한 사이에서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삼열의 춤은 이념의 갈등과 대립을 소멸하고 갈등으로 죽어간 넋을 위로하는 씻김굿의 행위와 다름 아니다. 삼열과 민진은 각각 가슴과 다리에 계엄군의 총을 맞고 광장에 쓰러진다. 분노에 가득찬 민진은 울부짖는데 정작 삼열은 “아마 미친놈이 날뛰는 줄 알고 지레 놀라서 오발했을 거다잉.”말한다. 그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두려움, 적개심, 분노를 소멸할 수 있다고 믿고 이

21) Martin Morgenstern, 양우석 옮김, 『니콜라이 하르트만의 비판적 존재론』, 서광사, 2001, 36-78면 참조

22) 347면

를 실천하고 있다. 삼열의 육체가 권력의 폭력에 맞서 산화하면서 극단적 대립과 갈등은 진정되는 모습이다. 또한, 죽음으로써 민진이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잡이하고 있다. 이때 민진의 장애는 현실의 횡포를 증언하는 표식이 되면서 삼열의 죽음과 함께 ‘생명’을 지켜낸 대속물로 역할하며 화해와 치유의 소설의 주제를 부각시킨다.

### 3. ‘과제’ 극복과 헌신의 사명 실천: 『휠체어의 꿈』

자서전적 소설의 경우 창작자는 자신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소설 속 주인공을 창조하지만 소설 속 주인공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의식함으로써 자기반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도 만들 수 있다. 독자의 입장에서는 독서에 앞서 소설에 대한 특정한 정보-자서전적 소설-를 알게 된다면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티프를 중심으로 자전적 요소의 개입 여부를 비교적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나아가 소설을 창작 방법과 시대적 특성의 내적 연관성 속에서 분석, 이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다.

나는 발광하듯 두 다리를 잡아 당겼다가 놓았다가 꼬집었다가 손톱으로 긁었다가 화를 내며 어쩔줄 몰라했다. 손톱자국이 별정계 나 있는데도 두 다리는 아무 감각도 없이 멋대로 휘청 거린다.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지! 이 주인의 안타까움을 조금만 이해해 주면 더 큰 바람도 없을텐데.<sup>23)</sup>

23) 장하이다, 김란나 역, 『휠체어의 꿈』, 도서출판 알뜰기획, 1992, 31면(이하 페이지수만 표기). 1992년 10월에 한국어판으로 발행된 『휠체어의 꿈』은 중국에서는 1990년(중국청년출판사)에 발행되었다. 『휠체어의 꿈』은 문학을 배경으로 문학과 연동하는 속에서 장애를 가진 주인공 ‘방단’과 그의 가족, 친구들의 삶의 서사가 펼쳐지는 장편 소설이다.

위 인용문은 주인공 ‘방단’이 자신의 장애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방에만 갇혀있는 현실에 절망하던 방단은 찾아간 학교에서 입학을 거절당하고 영영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다리를 꼬집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장애에 대한 환멸과 장애를 가진 몸에서 느끼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는 방단이 자신의 장애에 대한 타인의 인식<sup>24)</sup>-부정적이거나 편협한, 동정적인-을 짐작해버린 데서 발생한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방단은 너무 ‘쉽게’ 장애인에 대한 동정적 시선에 굴종하고, 너무 ‘쉽게’ 장애적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장애 당사자인 방단이 비장애인의 장애인 인식을 되받아 인식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뒤이어 진행되는 친구 사귄과 독학, 독서 등 방단의 미래지향적이고 의지적인 행위는 설명이 어려워진다. 타인으로부터의 동정과 배제를 인정했을 때 동반되는 자기연민과 우울의 감정 등은 소설 속 방단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충분히 오해를 불러올 만한 방단의 의지적 모습은 무엇을 의도하고 목적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이후 방단의 행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휠체어의 꿈』 저자 서문에서 밝힌 창작자의 의도를 방단으로 삼을 때 적극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24)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의 형성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시대적 사상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옛부터 멸시를 받으며 무능력자로 취급되었으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특유의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왔다(유용식,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제주도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vol25,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05, 141-172면) 중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1990년 ‘장애인보호법’ 정책 마련 이후 꾸준히 진행되는 제도의 보완 등은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을 대하는 비장애인 정서의 괴리 등을 반증하고 있다(중국 장애인 복지 정책 관련해서는 박준섭, 『중국 장애인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5(1), 한국공공사회학회, 2015, 400-422면을 참고하라)

장하이드는 서문에서 “방단(方丹)이란 이름을 빌려 모든 열정과 희망을 쏟아부었다. 독자 여러분들은 그를 통해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소설의 주인공 방단이 곧 자신의 모습이라는 고백이다. 동시에 소설의 특성을 빌어 방단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제 방단의 분노 표출이 그녀의 열정과 희망을 견인할 거란 기대가 가능해졌다. 장애로 인해 겪는 절망은 사실 그녀의 장애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를 위해 부여한 장치 정도가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설의 처음에서 방단과 엄마가 기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방단의 병약한 모습과 불편한 다리가 공개되는 상황에서 노출된 방단의 수치심 또한 이후 방단이 보여줄 ‘놀랍고’, ‘감동적인’ 희망을 부각시키려는 저자의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휠체어의 꿈』의 주제가 장애인 소녀 방단의 장애 극복과 자아실현 정도로 정리되는 것은 이미 소설 초반에서 밝혀진 듯하다. 그러나 주인공 방단의 장애 극복 과정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건 등을 좇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방단을 통해서 드러나는 저자의 의식을 읽어낼 수 있다. 이는 저자의 현재적 경험과 사고가 소설 속 자신을 닮은 인물의 성격과 사건의 본질에 간여하는 등 자전적 소설의 특성을 통해서 이해 할 수 있다. 또한 창작과 사건 전개 과정에서 문학을 겪은 저자의 자의식이 촉발했을 것이란 추측 또한 자연스러운 덕분이다.

방단은 입학을 거절당하고 좌절했다. 그러나 ‘담정’, ‘연녕’, ‘위가’, ‘효몽’ 등의 친구가 생기면서 일대 변화를 맞는다. ‘어둠’과 ‘고요’만이 가득했던 방단의 방 또한 그랬다. 친구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방단을 위해서 학교서 배운 노래를 가르쳐주고 책을 빌려다 준다. 방단의 친구들은 학교서 배운 봉사와 동지애를 실천하고, 방단은 친

구들을 통해서 중국 공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배우게 되었으며 서로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우정을 키워가게 되었다. 방단의 생활이 친구들의 등장으로 변화되고, 세상과 한층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개성이 조화롭던 방단의 친구들은 문혁이 시작되면서 큰 혼돈을 맞게 된다.

연닝이는 더욱 열변을 토한다. “모주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중략... 혁명은 폭동이다. 한 계층이 다른 계층을 뒤엎어 놓는 것이다. 그래서 반동분자들에게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반동분자들은 강제로 넘어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sup>25)</sup>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담정과 연닝은 대립하고 있다. 봉사대를 조직하고 방단을 업고 소풍을 함께 가자던 적극적인 성격의 연닝은 문혁의 이념을 절대적으로 숭상하고 신념화하고 있다. 친구들의 대립은 극단적-친구를 고발하는 등으로 치닫게 되면서 각자 새로운 운명을 구성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연닝은 ‘해방군’이 되어서 집을 떠나는 현재에 감격하면서 붉은 건물을 향해 “별스럽게” 고별 경례를 하는, 문혁기 흥위병의 모습이다.

주지하듯 문혁은 이념에의 맹목적 충성과 실천을 요구했다. 중국의 문혁을 이끈 마오쩌둥은 빈농을 사상적·정치적으로 동원하는 대중운동을 일으키려했다.<sup>26)</sup> 1966년 8월 1일과 2일 중국 당 중앙위원회에서는 문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文革16條」를 통과시키

25) 87면

26) Maurice Meisner, 김주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1, 이산, 2004. 362면(혁명의 주체가 되는 대중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담론에서의 ‘인민대중’이다. 즉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인정한 대중에 한정되는 것으로 개념 내부적으로 타자화를 전제하여 인민대중의 동일성을 확보한다. 모택동은 이러한 인민대중의 단일한 의식과 그로부터 발생한 힘을 통해서 문혁의 성공적 완성을 기대했을 것이다)



면서 기존의 당내 부르주아와 반혁명세력 규정을 반복<sup>27)</sup>하며 청년 홍위병(紅衛兵)을 선동하였다.<sup>28)</sup> 마오쩌둥은 혁명은 잘 조직된 대중적 권력과 홍위병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sup>29)</sup>하면서 이들을 더욱 부추겼고 홍위병은 스승을 재판에 넘기거나 분서갱유(焚書坑儒)하는 등 광폭한 행보를 이어갔다.<sup>30)</sup>

문학 현실의 횡포는 방단과 그의 친구들에게도 가해졌다. 친구의 오빠를 고발하거나 동생 대신 잡혀서 고문을 당하는 일 등은 그들을 피폐하게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화합을 도모하려는 방단의 행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녀는 신체적 결손과 함께 부모님이 징계받는 등의 상황에서도 문학에 대한 감정적 비판은 물론이고 몇 친구들과 같은 동요도 없다. 문학의 막바지에 ‘담정’은 문예단 단원이 되어서 피아노 연주를 계속하게 되었고 ‘리강’은 갇혀있던 자신을 탈출시키고 대신 붙잡혔던 형 ‘리명’을 대신하여 군 마장에서 일하고 있다. 연녕은 부모님이 타도되면서 아버지는 사무실에서 뛰어내리고 어머니는 격리 수감 되는 속에서도 혁명에 대한

27) 汪學文, 『中共文化大革命史論』, 國立政治大 國際關係研究中心, 1990, 59-70면을 崔寶藏, 『中國 文化大革命(1966-76)에 관한 研究』, 『中國研究』 제25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01, 21면에서 재인용

28) 1966년 8월18일 마오쩌둥이 처음으로 백만 홍위병의 대표들을 만나는 대회에서 린바오(林彪)는 “자본주의 도로를 달리는 당권파(當權派)의 타도, 자산 계급 반동 권위 인물(權威)의 타도, 자산계급의 모든 보황파(保皇派)들의 타도, 혁명을 압제하는 형형색색의 행위 타도, 똥쓸 귀신잡귀들의 타도!”를 외쳤다(송영배, 『문화대혁명에 대한 사회사상사적 이해』, 『중국문화대혁명시기 학문과 예술』,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엮음, 태학사, 2007, 55면)

29) 마오쩌둥은 “文化大革命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바로 계급투쟁이다.”라며 계급투쟁이 문학의 중심 임무라고 밝혀 강조했다(共靑團北京市委編, 『文化大革命奮新人』, 中國青年出版社, 1976, 3면을 김기효, 『知識人에 對한 毛澤東의 인식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07면에서 재인용)

30) 『연변일보』 등은 1966년 8월 9일자에 전달 채택된 『중공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무산 계급 문화대혁명에 관한 결정』 전문을 신는 것으로 마오쩌둥의 개인 영도는 실제적으로 당 중앙의 집단영도체제를 대신하게 되었고, 마오쩌둥 개인의 숭배 풍조는 최고조에 달했다.

신념을 꺾지 않다가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사상의 통제와 일방적, 선동적 이념의 폭력이 남긴 상처는 컸다. 이는 방단이 문학 직후 발생한 친구들의 갈등과 분열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피력했던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하는 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물론 방단은 부모님이 조사, 숙청되는 상황과 친구들의 고통과 불행을 목도하면서도 그것을 막지 못 한 자신을 나약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자괴감을 드러낸다. 훼손된 육체의 누락된 능력에 대한 자기모멸을 경험하고 있는<sup>31)</sup> 것이다. 실제 방단이 할 수 있었던 일이란 방 창문에 신문지를 붙이고 어둠 속에서 가족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뿐이었기에 자기모멸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소설의 처음부터 발견할 수 있었던 방단의 장애 극복 의지가 사건 전개에 따라 요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방단의 절망은 이전처럼 곧, 다시 변화를 맞게 된다. 리강으로 인해 방단의 뚜렷한 목표의식과 그것에서 발로하는 의지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는 방단이 “나는 아무 것도 못하는 병들어 있는 아이잖아”라고 말했을 때 “너의 정신적 건강이 육체적 건강보다 훨씬 뛰어났기에 새로운 길들을 개척했었지. 그래서 너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었어.”라며 방단의 소멸된 듯한 목표와 의지를 자극하였다. 리강 덕분에 방단은 ‘병신’의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의지를 북돋게 되었다. 어쩌면 리강은 방단에게 장애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전달함으로써 장애 인식의 제고를 권고하고 있다. “장애란 재현, 즉 신체적 변화 또는 형상에 대한 무화적 해석이

31) 장애인의 몸이 영구히 손상되어 있는 것처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들의 지위 또한 그렇게 손상되어 있다. 장애인들의 존재 상태에 있어 지속되는 불확정성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유사한 규정성의 결핍을 생산하며, 그러한 불확정성과 규정성의 결핍은 어쨌든 그들이 손상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대체 되고 무마된다.(베네딕트 잉스타·수잔 레이놀즈 휘테 엮음, 위의 책, 298-299면)

며 사회적 관계와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몸들의 비교”<sup>32)</sup>라는 관점에서 몸의 역할에 관심을 갖는다면 오직 ‘결핍된’ 신체로서의 장애인식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정체성과 자의식을 구성하게 될 것이란 인식이다.

①금래야, 울고 싶을 때 실컷 울어라. 네 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다 뱉아 버려라. 왜 우리들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도 건강한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②위가 그리고 리강아! 나의 두 오라버니, 요즘도 내가 답답하고 의기소침해지면 나는 하늘 다른 곳에서 나를 생각하는 두 친구가 있다는 것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게 돼. 비록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 함께 생명의 옥토에 씨앗을 뿌리고 있지!

③리강아! 네가 내게 부여주었던 관심과 사랑으로 이들을 도와주고 있어 정말 고마워! 나는 이 마을을 위해 자그마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보람있고 뜻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

④리강아 내가 많이 변했지? 너 느끼고 있지? 전처럼 유리창만 지키고 앉아 자유를 꿈꾸는 창백한 소녀가 아니라 외로움에 젖었던 마음에 이제 날개가 달려서 힘차게 날아다니고 있어. 나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 “하늘도 내 것. 땅도 내 것. 아름다운 청춘도 내 것이다.”<sup>33)</sup>

인용문은 방단의 장애 극복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방단이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하방(下放)한 이후 더욱 견고해졌다. 가족과 긴 여행 끝에 도착한 ‘도촌’은 흙집과 좁은 길, 황무지 등 전체 구성원이 힘을 합쳐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 곳이었다. 방단은 그곳에서 ‘금래’, ‘딱딱이’, ‘우우’, ‘소영’ 등을 만나고 그들이야말로

32) 로즈메르 갈런드 톰슨, 위의 책, p.17.

33) ①288면 ②297면 ③302면 ④364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방단은 이때부터 혼자서 의학을 공부하여 도촌 사람들을 치료하게 된다. 청각 장애를 가진 금래를 돌봐 말을 할 수 있게 했고, 장난꾸러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도촌의 미래를 위해 역할 했다. 이때마다 방단이 하는 이야기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이다. 척박한 농지로 인해 배고픔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공부를 계속하고 능력을 쌓아서 다시 지역을 일으키는 일꾼으로 살자고 계획하고 있다. 이는 저자의 체험에서 구성된 자의식이 적극적으로 소설에 개입되어 표출되는 양상이다.<sup>34)</sup>

방단은 사회를 위한 일꾼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문학을 거치면서 더욱 단단해졌다. 방단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속에서 기쁨을 느끼며 어떤 고난도 이겨낼 것을 다짐한다. “앞으로도 이 육신의 허약함과 계속 싸워나가야만 할 것”이라면서 “구름이 시커멓게

34) 장하이디는 “살아있다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라”(活着就要做个对社会有益的人。) 등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이미 1983년 〈중국청년신문〉에 발표된 글 〈유성이면 빛을 인간에게 남겨준다〉에서도 장하이디처럼 “살아있으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라”는 신념을 가지고 인민 대중을 위하여 공헌을 해야 한다면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 등을 알려 주었다. 또, 1983년 5월에는 중국 중앙이 〈장하이디 동지한테 배워야 할 결정〉을 발표하면서 중국 국가 지도자 등소평, 섭검영, 이선녘 등 무산계급 혁명가가 장하이디를 위하여 격려글을 써 주었고 그의 공헌 정신을 칭찬하였다(1983年, 《中國青年報》發表《是顆流星, 就要把光留給人間》, 宣傳張海迪怀着“活着就要做个对社会有益的人”的信念, 以保爾為榜樣, 勇于把自己的光和熱獻給人民的故事。她以自己的言行, 回答了亿万青年非常關心的人生觀、價值觀問題。張海迪名噪中華, 獲得兩個美譽, 一个是“八十年代新雷鋒”, 一个是“当代保爾”。1983年5月, 中共中央發出《向張海迪同志學習的決定》, 党和國家領導人鄧小平、叶劍英、李先念等八位老一輩无產階級革命家先后為張海迪題詞, 表彰她積極進取, 無私奉獻的精神。) 또 2016년 11월 22일 인터넷 매체에는 장하이디가 ‘전세계 장애인 청소년 IT 챌린지 라운드’에서 “지식이 힘이다”며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라”고 격려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新任康復國際主席張海迪寄語全球殘疾青少年: 知識就是力量 “一个人身体殘疾了并不可怕, 重要的是永遠也不要放棄努力。只要堅持學習, 用知識充實自己, 就會成爲對社會有用的人。”中新網南京11月22日電 (記者 崔佳明) 22日)

내게 물려온다. 구름이 햇빛을 가리려고 할 때, 나는 팔을 죽 뺀어 책상 위에 놓인 책을 잡는다...”는 결말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결의를 확인해주고 있다. 방단은 자신의 과제를 분명하게 인식, 결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타자<sup>35)</sup>에 대한 경험의 의지이다.

#### 4. 삶의 비정형성을 획득하고 주체로서 현실과 조응하는 여성, 장애

두 편의 소설은 장애를 가진 인물이 주요 등장인물이거나 사건의 핵심에서 서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저자의 현재적 의도와 궁극적 목적이 허구라는 큰 틀 속에서 사건을 구성하고 인물의 갈등을 만드는 속에서 전달되었다. 이때 장애의 함의가 구축되고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었다. 두 편의 소설은 저자의 체험이 창작의 바탕이 되는 등에서 과거와 관련한 기억 행위가 존재한다. 때문에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실 자체와는 거리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자의 체험은 현재적 시점에서 기억하고 있는 자신이거나 회상된 자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과거는 저자가 현재의 시점에서 기억하거나 회상하는 과거일 뿐이다. 이때 기억과 사실 자체와의 거리는 체험과 기억을 통해서 구성되어온 저자의 자의식이 소설 속 주인공을 통해서 표출되거나 사건의 중심에 선 주인공과 주요 인물의 갈등을 통해서 저자의 자의식을 강화, 보완, 수정하는 등으로 새롭게, 지속적으로 구성되며 채워지고 좁혀진다. 자서전적 소설은 ‘사실’에 대한 서사적 정직

35) 알 수 없는 타자와의 대면에서 발생하는 비대칭성 혹은 불확실성이라는 상태에 주목할 때, 주체의 지평에서는 미리 짐작해 볼 수 없고 최소한의 계획도 세울 수 없는 미래의 시간으로서의 ‘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타자 중 하나이다(B.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강영안 옮김, 문예출판사, 1996, 84-86면; A. 바디우, 『윤리학』, 이종영 옮김, 동문선, 2001, 54-55면)

함이 담보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과 진실에 대한 ‘가공된 사실’이 서술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불꽃춤』의 민성은 광주를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사회화한 나를 의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성은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재가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으로 이해하고 스스로를 사멸된 모성성의 존재로 인식하며 고립된 삶을 살아왔다. 그는 이미 어릴 적부터 이념, 권력, 사회라는 타자의 힘을 내면에 부조하면서 그것과 맞서지 못하는 나약한 자신을 타하며 죄의식을 키워왔던 것이다.

그러나 민성은 6.25를 닮은 폭력적 이데올로기에 저항한, 아버지의 순수한 눈동자를 닮은 사촌동생 민진을 찾아내면서 비로서 죄의식을 떨쳐낼 수 있게 된다. 민성은 아버지가 거제도포로수용소에서 평화와 화해를 외치다 죽어간 사실을 알게되면서 광주에서의 민진과 삼열의 행방을 적극적으로 좇을 수 있었다. 그들은 진압군과 시민군의 대립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으로 서로를 향한 무차별적 분노의 비극을 종결하고 있었다. 삼열과 민진을 찾는 과정에서 이미 사멸되었다고 생각한 민성의 모성이 힘을 발하게 된다. 민성은 자신을 두고 재가했지만 현재는 의붓딸이 낳은 딸-장애를 가진-을 홀로 기르고 있는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생명을 품고, 살리는 모성 회복의 기회를 맞게 된 때문이다. 이후 민성은 죽은 삼열에 대한 죄의식으로 죽음을 선택하려던 민진을 찾아내고, 그가 다시 살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품어내고 살리는 모성을 발휘한다. 민성이 보여준 모성은 이념과 권력 이데올로기의 폭압으로 위협받았던 과거로의 회귀를 막아서는 동시에 가족애를 회복하고 부재했던 부모의 존재와 흩어졌던 가족 공동체를 복구하고 있다.

민진의 장애는 진압군과 시민군의 갈등-폭력적 이념과 이에 대한 저항-을 봉합하기 위한 대속물로서 역할했던 동시에 이념과 권력의

폭력을 해소하고 차이와 분열을 말소함으로써 ‘문제적’ 지점을 내장한다.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권력을 무력하게(삼열의 경우 병든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대립을 해소하는) 하는 새로운 ‘권력’으로 등극하는 것이다. 민진은 장애를 갖게 된 후에 현실을 ‘다시’ 살아갈 것이다. 민성 또한 비로소 자신의 아픈 과거로부터 탈주하여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주지하듯 저자의 생애적 장애 경험과 그로 인해 느낀 “생존의 결핍감”, 광주 체험은 곧장 소설에 혼용되어 민성의 죄의식으로 받아들여진 것<sup>36)</sup>이라 할 수 있다. 성인이 된 민성의 삶을 적극적으로 간여하는 죄의식은 아버지가 겪었던 이데올로기의 극한 대립의 상황을 다시 맞닥뜨리게 되면서 실체와 맞설 의지를 추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갈등과 대립의 현장에서 죽음으로, 한 쪽 다리를 잃는 것으로, ‘우리 민족끼리의’ 생사의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는 대속물이 된 삼열과 민진을 통해서, 또, 사라져버린 그들을 찾은 것으로 죄의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때 민진의 장애는 갈등과 분열의 종식을 대속하는 동시에 이전과 다른,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매개가 되고 있다. 즉, 장애가 갱생의 삶을 매개하면서 행복과 비극의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은 삶의 비정형성의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일련의 과정에서 갖게된 민진의 장애는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관점<sup>37)</sup>에서 장애를 인식할 수 있는 새 장을 펼쳐내고 있는 점에서 의

36) “작가와 주인공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소설의 경우) 독자는 작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 둘 사이의 유사성을 찾으려 애쓸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동일성이 분명하게 주어진다면(자서전의 경우)독자는 그 반대로 둘 사이의 차이점(작가의 실수, 혹은 왜곡된 사실 등)을 찾으려 할 것이다. 자전적인 양상을 갖는 이야기를 대할 때 독자는 흔히 사냥개처럼 저자와 독자간의 협약(그것이 어떤 협약이건간에)이 파기된 곳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다. 저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독자는 텍스트 속에서 자기가 찾아냈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진실되고 심오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필립 르죈, 앞의 책, 37면)

37)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정의론으로서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인간관’에 기반을 두고 제도적 측면과 비제도적 측면인 문화와 태도 등의 통합적 접근

의를 획득한다.

『휠체어의 꿈』은 저자의 체험이 담긴 이야기 속에 주인공 방단을 위치시키고 방단이 공동체 속에서 '나'의 존재적 조건을 내면화하도록 했다. 문혁으로 구체화 되고 표출된 방단의 자의식은 창작자의 현재적 자의식을 담지하고서 재현되고 있다. 방단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그 가치를 위해 자신의 삶을 조정하였다.

그 과정은 사건 전개상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주인공 방단이 자신의 장애에 절망하고 슬퍼하면서도 장애 극복을 위해 학교 교육 받기를 희망하면서 친구를 사귀고 그들과 함께 미래를 위한 꿈을 키워가는 내용이다. 방단은 이미 일찍부터 자신의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위치시키고 있다. 그 다음은 문혁 발생 직후의 혼란과 홍위병 등으로 친구들이 분열하는 속에서 '우리'의 중요성을 역설한 방단 또한 문혁의 고통을 겪는 내용이다. 방단은 장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원망하고 절망감을 느끼는데 이때 친구 리강 등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의지를 견지하는 모습이 되찾게 된다.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되겠다는 방단의 결심과 의지가 요동하는 양상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장애는 주체를 재생하는 '매개'가 되고 있다. 마지막은 부모와 함께 농촌으로 하방한 방단이 농촌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사고를 깨우면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멈추지 않기로 다짐하는 내용이다. 즉, 더

---

을 강조하고 장애인을 정당화와 분배의 주체로 인정하여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존중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의 정의론들은 원칙의 정당화와 재화의 분배 과정에서 장애인을 결여되고 의존적인 존재로 폄하하고 장애인을 사회적 주체에서 배제하여 차별과 착취의 고착화를 초래한다는 비판 아래 제안된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의를 제거할 수 있는 현실성을 담보한 이상론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목광수, 『장애(인)와 정의의 철학적 기초』, 『사회와 철학』 23, 사회와철학연구회, 2012, 147-184면)



이상의 갈등과 고민을 물리치고 장애 극복을 통한 사회 헌신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방단은 자신을 현실의 갈등을 봉합하고 이상을 제시하는 우월한 존재로 등극<sup>38)</sup>시키고 있다. 이는 장애를 가진 방단의 육체에 각인된 사회적 권력 관계와 억압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방단의 강인한 의지 또한 읽어낼 수 있게 하고 있다. 방단은 독학으로 의학을 공부해서 청각장애를 가진 금래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었고 하천 공사로 많은 이들이 죽은 현실에서도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죽은 이들을 대신하여 더 열심히, 더 많이 일하겠다고 다짐한다. 도촌민들 또한 방단과 같은 다짐을 갖게 되었고 방단은 감동하고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도 서술되었다시피 방단은 “정열을 다 해 개척해 온 내 인생의 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 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경험을 통한 정서의 공유이다. 인간의 삶의 영역 자체는 바로 정서를 경험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휠체어의 꿈』은 장애에 대한 주인공의 태도가 자주 변화를 겪지만 처음부터 일관되게 장애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대상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 특히 장애 여성으로서의 방단의 실존적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까닭은 방단이 『불꽃춤』의 민성과 달리 이데올로기 갈등과 폭력의 현실과 크게 갈등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까닭을 알 수 있다. 방단은 문혁 현실에 일관되게 순응하면서 장애가 있음에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과제에 집중하였다. 타인을 위한 헌신에 몰입하면서 이를 사명으로 확신하고 있다. 개인의 발전을 통해서 주변을 변화시키려는 순진한 도전의식에 집중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재생하고 있다. 이는 소설 서문에서 저자 자신이 곧 방단이라는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현재 저자의 사

38) 푸코는 ‘육체는 권력관계에서 생산된 역사적 구성물로 등장한다’고 했다(미셸 푸코, 이규현 옮김, 『성의 역사』, 나남, 2004) 이는 육체를 사회적 권력관계의 작용으로 파악함으로써 여성, 특히 장애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을 생물학적 이유로 설명하는 기존의 틀을 해체할 수 있다.

회적 위치와 활동 등이 장애 인식의 문제와 혼용되면서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을 형성하고 소설의 주인공 방단을 통해 발현, 표출 할(될) 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꽃춤』과 『휠체어의 꿈』의 주요 인물과 사건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저자의 자의식은 장애가 가진 다양한 속성과 의미를 보여주었다. 장애는 행복과 비극의 판단이 불가능한 비정형적 삶의 ‘공간’을 생성하는 매개이기도 했고 극복해야 할 과제이거나, 극복을 증명하고 싶은 대상이기도 했다. 그리고 장애는 각 소설의 여성 주인공들이 보여준 헌신과 희생의 모성성을 극대화하면서 장애 인식의 문제를 증폭, 확산하는데 역할하였다. 그러나 두 소설은 장애를 통해서 이념과 권력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에 역할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으나 권력 이데올로기에 조응하는 방식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불꽃춤』의 민성은 저항의 모습으로, 『휠체어의 꿈』의 방단은 일관되게 현실에 순응하고 문혁 이데올로기의 지향점을 공유하는 태도였다. 이는 두 소설의 변별적 특성으로 이해 된다.

두 소설은 장애 인식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는 잠재성을 확인하고 이를 타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장애의 잠재성은 현실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견인차이며 미래의 미결정성을 보장하는 근거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소외와 배제, 편견의 힘에 끊임없이 맞서는 탈영토화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 5. 맺음말

주지하듯 『불꽃춤』과 『휠체어의 꿈』은 사실을 기억하는 사실의 서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허구의 이야기가 섞여 창작된 자전적 소설

이다.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의 저자의 체험에서 구성된 의식과 사실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조작되거나 가공된 기억이 끼어들어 사건이 전개될 수 있었다. 경험의 재현을 보여준 자기서사적 글쓰기로서의 자전적 소설은 주변인, 약자를 통해서 지배적인 권력관계나 문화현상에 의문을 제기하고 또 그 속에서 개별적 주체가 구성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심과 주변 관계의 해체에 기여할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었다. 이는 소수 집단의 호소와 저항의 무기로도 역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갖는다.

본고를 통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얻는다. ‘광주’와 ‘문학’의 구성원으로서의 체험과 기억에 관한 것이다. 특별한 구성원으로서 특별한 현실을 살아낸 이들의 목소리는 현실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의 체험과는 변별되는 특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안혜성, 『불꽃춤』, 나남기획, 1988.

장하이다, 『휠체어의 꿈』, 도서출판 알돌기획, 1992.

2. 논문 및 단행본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2권), 1997.

김기효, 『知識人에 對한 毛澤東의 인식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김세령·남세현, 『한국 소설에 재현된 다문화 사회 장애 남성상』,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4 No10,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6, 499-506면

목광수, 『장애(인)와 정의의 철학적 기초』, 『사회와 철학』 23, 사회와철학연구회, 2012, 147-184면

박준섭, 『중국 장애인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5(1), 한국공공사회학회, 2015, 400-422면

방귀희, 『장애인문학의 특성과 과제』, 『국제한인문학연구』 21호, 국제한인문학회, 2018, 5-40면

박영혜이봉지, 『한국여성소설과 자서전적 글쓰기에 관한 연구』, 『亞細亞女性研究』, 숙명여자대학교아시아여성문제연구소, 2001, 7-28면

박희병, 『‘병신’에의 視線-近代化 텍스트에서의』, 『古典文學研究』2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방민호, 『일본 사소설과 한국의 자전적 소설의 비교』, 『한국현대문학연구』 31, 한국현대문학회, 2010.

송영배, 『문화대혁명에 대한 사회사상사적 이해』, 『중국문화대혁명시기 학문과 예술』,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엮음, 태학사, 2007.

유용식,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제주도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vol25,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05,141-172면

이수형,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자의식의 발현 양상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제56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1, 389-413면

- 차희정, 「장애인 창작 소설의 주제 변모 양상-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25년간 수상작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62,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405-431면
- 崔寶藏, 「中國 文化大革命(1966-76)에 관한 研究」, 『中國研究』 제25권, 한국외국어대학교중국연구소, 2001, 3-33면
- A. 바디우, 이종영 옮김, 『윤리학』, 동문선, 2001.
- E. 레비나스, 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 Fletcher Jr., Bill 외 지음, 지주형 옮김, 『정체성 싸움』, 미세기, 2004.
- 장 폴 사르트르, 손우성 옮김, 『존재와 무Ⅱ』, 삼성출판사, 1976, 89-115면
- 필립 르죈, 윤진 옮김,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998, 15-72면
- Maurice Meisner, 김주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1, 이산, 2004.
- 로즈메르 갈런드 톰슨, 손홍일 옮김, 『보통이 아닌 몸』, 그린비, 2015, 15-74, 185-190면
- 수전 웬텔, 강진영·김은정·황지성 옮김, 『거부당한 몸: 장애와 질병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 그린비, 2016, 39-77, 80-105면
- 베네딕트 잉스타·수잔 레이놀스 휘테 엮음, 김도현 옮김, 『우리가 아는 장애는 없다. 장애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 2013, 그린비, 13-64, 253-284면



<Abstract>

Self-consciousness Expressed in Creative  
Writing by Korean and Chinese Women with  
Disabilities

—With focus on 『Fireworks Dance』 by  
Ahn Hye Sung and 『The Dream of a  
Wheelchair』 by Zhang Heidi—

Cha, Hee-Jung

This article explores how self-consciousness is expressed in the autobiographical novels, “Firework Dance” and “The Dream of a Wheelchair”, of Korean and Chinese women with disabilities. It examines how this self-consciousness in women with disabilities has been formed, as well as how this has been expressed and revealed to the reader. In “Fireworks Dance”, Minseong’s idealist father is murdered in the Geoje island prison camp. Through this experience, Minseong experiences ideological conflicts as well as deep grief for the loss of her father. She is healed through reuniting with her cousin, ‘Minjin’, who had disappeared during the 5.18 Kwangju Uprising. Minjin’s disability plays a sacrificial role in eliminating conflict and segregation as well as acting as a mediator in the rise of a new area of a typical life. ‘Bangdan’ in “The Dream of a Wheelchair” consistently thinks of her disability as an obstacle she must overcome.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her desire to become someone ‘useful’ actively

shapes her identity. Her self-consciousness, as depicted by her disability, finds its meaning through reconnecting conflict divided communities as well as recognizing and highlighting the potential in an uncertain future. In addition, the self-narrative style of writing used in the novel plays a significant role in questioning and confronting the dominant power relations and state of the culture. The two novels are common in the way in which the lead character's disability helps to resolve conflicts and creates hope for a positive future. However, the novels are different in the way they respond to authoritarian ideologies.

key words: Autobiographical novel, disability, people with disability, woman, self-consciousness

투 고 일 : 2018년 8월 25일    심 사 일 : 2018년 8월 25일-9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8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 2018년 9월 24일